



IMD 2017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내 용

1. 개요
2. 국가 경쟁력 순위
3. 과학 경쟁력 순위
4. 기술 경쟁력 순위
5. 정리 및 시사점

작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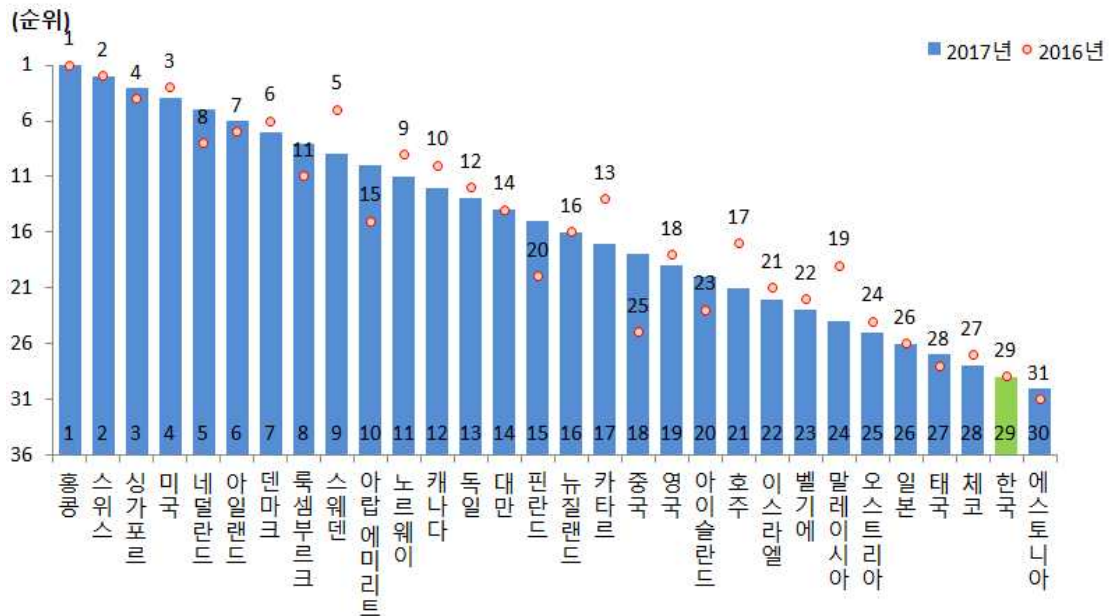
안지혜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 jihye@kistep.re.kr | 02-589-5240

1. 개요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1994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IMD 세계 경쟁력 평가(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
 - IMD 세계 경쟁력 연감은 WEF의 국가 경쟁력 지수 등과 함께 경제 및 非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
 - * 국가 경쟁력 :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
 - 2017년에는 세계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63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
 - * 2017년 신규 평가대상국(총 2개국) : 사이프러스, 사우디아라비아
- **이번 호에서는 2017 IMD 세계 경쟁력 연감 중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석**
 - * IMD 과학·기술 경쟁력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정도를 평가하는 것임(Stephanne Garelli, 2008)
 - 과학·기술 인프라는 4대 평가부문(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 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중 발전 인프라의 하위 분야
 - ※ 평가는 4대 부문, 20개 항목, 34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브리프에서는 346개 지표 중 과학 인프라(25개)와 기술 인프라(21개)를 중심으로 분석

2. 국가 경쟁력 순위

- **2017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9위로 전년대비 동일**
 - 최상위권 그룹의 경우, 홍콩, 스위스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1,2위를 유지, 싱가포르의 전년대비 1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3위, 미국은 전년대비 1단계 순위가 하락하여 4위를 차지
 - 10위권 국가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아랍에미리트(15위→10위, ↑5)와 네덜란드(8위→5위, ↑3), 룩셈부르크(11위→8위, ↑3), 싱가포르(4위→3위, ↑1), 아일랜드(7위→6위, ↑1)는 상승한 반면, 스웨덴(5위→9위, ↓4), 미국(3위→4위, ↓1), 덴마크(6위→7위, ↓1)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
 - 최하위권 그룹은 베네수엘라, 몽골, 브라질,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등이 차지하였으며 최하위 10위권 국가들은 모두 종합순위가 하락세임
 - 12개 아시아 국가 중 중국(25위→18위, ↑7), 인도네시아(48위→42위, ↑6), 싱가포르(4위→3위, ↑1), 태국(28위→27위, ↑1), 필리핀(42위→41위, ↑1) 등 5개국 순위가 상승
 - 반면,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19위→24위, ↓5), 인도(41위→45위, ↓4), 몽골(60위→62위, ↓2) 등 3개 국가의 순위는 하락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그림 1〕 국가 경쟁력 순위 추이 : 상위 30개국(2016년~2017년)

● 우리나라 4대 부문별 순위 중 기업경영효율 부문만이 전년대비 4단계 상승했으나, 기업경영효율은 4대 부문 중 순위가 가장 낮아 여전히 취약한 영역

- 정부행정효율(26위→28위, ↓2), 발전인프라(22위→24위, ↓2), 경제운용성과(21위→22위, ↓1) 부문은 전년대비 1~2단계 하락

〔표 1〕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및 4대 분야별 순위 추이(2013년~2017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가 대상국	60개국	61개국	61개국	61개국	63개국
국가 경쟁력	22	26	25	29	29(-)
• 경제운용성과	20	20	15	21	22(↓1)
• 정부행정효율	20	26	28	26	28(↓2)
• 기업경영효율	34	39	37	48	44(↑4)
• 발전 인프라	19	19	21	22	24(↓2)
- 과학 인프라	7	6	6	8	8 (-)
- 기술 인프라	11	8	13	15	17(↓2)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3. 과학 경쟁력 순위

○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 순위는 8위로 전년대비 동일

- 2009년 이후 우리나라 과학 인프라 순위는 지속적으로 10위권을 유지*

* 3위('09)→4위('10)→5위('11)→5위('12)→7위('13)→6위('14)→6위('15)→8위('16)→8위('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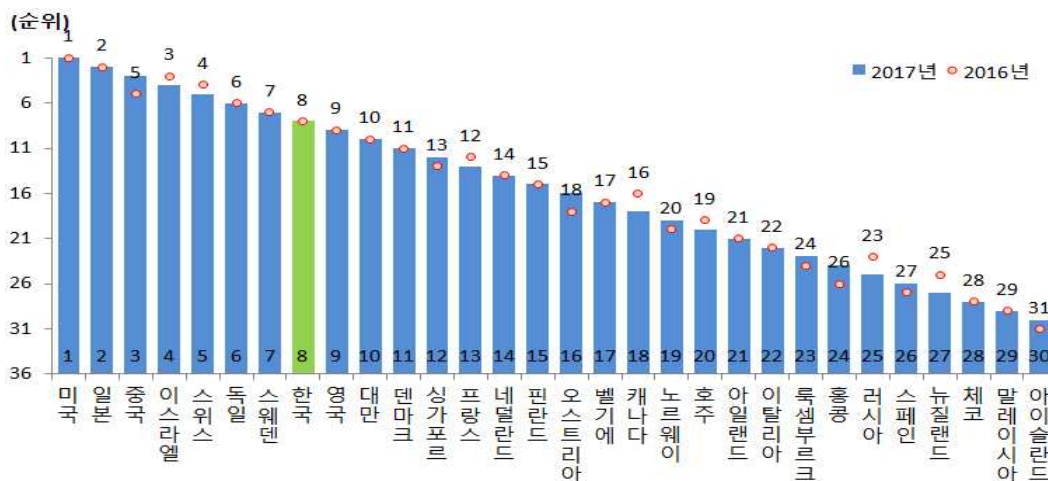
- 1,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미국과 일본. 상위 10위권 중 중국이 유일하게 순위 상승(5위→3위, ↑2)

- 12개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의 큰 폭 상승(↑6)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 또는 하락

• 인도네시아(58위→52위, ↑6), 중국(5위→3위, ↑2), 홍콩(26위→24위, ↑2), 싱가포르(13위→12위, ↑1)은 전년대비 상승

• 일본(2위→2위, -), 한국(8위→8위, -), 대만(10위→10위, -), 말레이시아(29위→29위, -), 인도(33위→33위, -)로 전년수준 유지

• 필리핀(55위→57위, ↓2), 몽골(61위→63위, ↓2), 태국(47위→48위, ↓1)은 전년대비 하락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그림 2〕 과학 인프라 순위 추이 : 상위 30개국(2016년~2017년)

○ 과학 인프라 총 25개 지표(정량 19개, 설문 6개) 중, 6개 지표는 순위 상승, 7개 지표는 하락

※ (2016년 순위 변동 현황) 총 25개 지표 중 3개 순위 상승, 9개 순위 하락, 11개 동일, 1개 신규 지표

- 전체 지표별 순위의 상승은 1~7단계, 하락은 1~6단계로 비슷한 폭을 나타냄

- 과학 인프라의 설문지표(총 6개)는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한 지표가 절반*(3개)이며, 설문 지표 순위 상승의 폭은 1~7단계, 순위 하락의 폭은 1~6단계로 전년대비 변동 폭이 좁음

* 과학 인프라 : ('17년) 총 6개 설문지표 중 2개 순위 하락, 3개 순위 상승, 1개 순위 유지

※ (2016년 설문지표 순위 변동 현황) 총 6개 설문지표 중 6개 모두 순위 하락

(2016년 설문지표 순위 변동 폭) 전년대비 4~15단계 순위 하락



●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 관련 지표들은 몇 년간 소폭 변동하였으나, 여전히 10위권 이내 강점 지표를 유지 (강점 지표 14개)

- 특히, GDP 대비 연구비(2위), 인당 특허 수 관련 지표(3~4위), 연구개발인력(5위), 기업 연구개발비(5위) 등 지표는 세계 최상위권
- 반면, 노벨상 수상 관련 지표(각 29위), 지식재산권 보호(44위), 과학기술 관련 설문지표 등은 25위권 밖으로 전년도에 이어 약점 지표 유지 (약점 지표 9개)

※ (2016년 강·약점 지표) 총 25개 지표 중 14개 강점 지표, 9개 약점 지표

[표 2]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 지표별 순위 추이(2013년~2017년)

과학 인프라 지표 (총 25개)	2013	2014	2015	2016	2017	순위변동
과학 인프라 종합 순위	7	6	6	8	8	-
총 연구개발투자	7	6	6	6	5	↑1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비 비중	3	1	2	1	2	↓1
국민 1인당 연구개발투자	20	16	14	14	13	↑1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6	5	5	5	5	-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2	2	2	2	2	-
총 연구개발인력	7	6	6	6	5	↑1
인구 천명 당 연구개발인력	14	9	9	8	8	-
기업 총 연구개발인력	6	5	5	5	6	↓1
인구 천명 당 기업 연구개발인력	12	8	6	4	4	-
인구 천 명당 R&D연구자 수	-	-	-	4	4	-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비율	10	9	9	16	17	↓1
과학분야 논문 수	9	9	9	9	9	-
노벨상 수상	27	27	27	28	29	↓1
인구 백만 명당 노벨상 수상	27	27	27	28	29	↓1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수	4	4	4	4	4	-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수	3	4	3	3	3	-
출원인 국적별 특허 등록 수	4	4	4	4	4	-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권리유효 특허건수	2	4	3	3	3	-
GDP 대비 지식 및 기술집약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	-	-	30	30	-
과학연구 수준이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 정도*	21	26	19	34	27	↑7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	25	33	29	34	33	↑1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27	30	30	34	34	-
지적 재산권의 보호정도*	40	41	27	38	44	↓6
산학간의 지식 전달정도*	27	29	22	34	32	↑2
기업의 혁신역량*	19	28	21	33	34	↓1

주) 분야별 강점 지표(분홍색 음영)는 10위 이내의 지표, 약점 지표(노란색 음영)는 25위 이하를 의미, * 설문 지표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4. 기술 경쟁력 순위

● 우리나라의 기술 인프라 순위는 17위로 전년대비 2단계 하락

- '09년 이후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4년 10위권 진입(8위)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임*

* 14위('09)→18위('10)→14위('11)→14위('12)→11위('13)→8위('14)→13위('15)→15위('16)→17위('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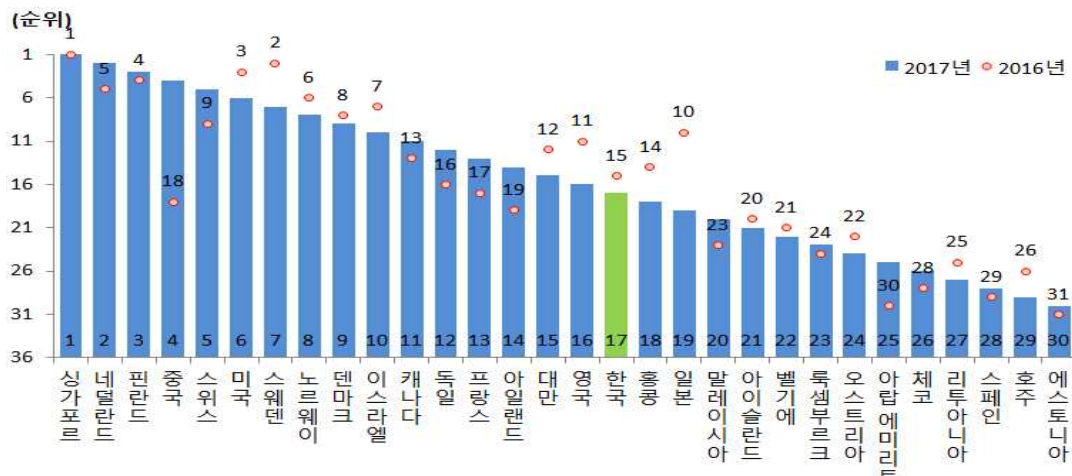
- 1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싱가포르가 차지하였으나, 2위~5위 상위권은 네덜란드(5위→2위, ↑3), 핀란드(4위→3위, ↑1), 중국(18위→4위, ↑14), 스위스(9위→5위, ↑4)로 다소 변화

- 12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14), 태국(↑6)의 급등과 일본의 급락(↓9) 등 순위 변화가 큼

• 중국(18위→4위, ↑14), 태국(42위→36위, ↑6), 말레이시아(23위→20위, ↑3)는 전년대비 상승

• 싱가포르(1위→1위, -), 인도네시아(54위→54위, -)는 전년수준 유지

• 일본(10위→19위, ↓9), 인도(45위→49위, ↓4), 홍콩(14위→18위, ↓4), 대만(12위→15위, ↓3), 몽골(59위→62위, ↓3), 한국(15위→17위, ↓2), 필리핀(41위→42위, ↓1)은 전년대비 하락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그림 3] 기술 인프라 순위 추이 : 상위 30개국(2016년~2017년)

● 기술 인프라 총 21개 지표*(정량 11개, 설문 10개) 중, 12개 지표의 순위가 전년대비 하락

* 기술 인프라는 올해 1개 지표가 삭제되고 1개 지표가 신설. 또한, 1개 지표 정의를 변경

- 5개 지표는 순위 상승, 12개 지표는 하락, 3개 지표는 전년대비 순위가 동일, 1개는 신규 지표임

※ (2016년 순위 변동 현황) 총 25개 지표 중 1개 순위 상승, 10개 순위 하락, 6개 동일, 4개 신규 지표

- 설문지표(10개)의 경우,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절반(5개)* 가량이며, 설문지표의 순위 하락 폭은 1~4단계, 순위 상승(3개) 폭은 2~7단계임

* ('17년) 총 10개 설문지표 중 6개 순위 하락, 3개 순위 상승, 1개 신설

※ (2016년 설문지표 순위 변동 현황) 총 10개 설문지표 중 9개 순위 하락, 1개 순위 유지

(2016년 설문지표 순위 변동 폭) 전년대비 5~20단계 순위 하락



- 정량지표(11개)의 경우,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6개이며*, 정량지표의 순위 하락 폭은 1~8단계, 순위 상승(2개) 폭은 각각 4단계, 28단계임

* ('17년) 총 11개 정량지표 중 6개 순위 하락, 2개 순위 상승, 3개 순위 유지

※ (2016년 정량지표 순위 변동 현황) 총 11개 정량지표 중 1개 순위 하락, 1개 순위 상승, 5개 순위 유지, 4개 신규
(2016년 정량지표 순위 변동 폭) 1개 지표는 2단계 순위 상승, 1개 지표는 15단계 순위 하락

● 평균 인터넷 대역폭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1위)을 유지하는 등 강점 지표는 총 3개

- 이외에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6위),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7위)은 10위권 유지
- 반면, 인당 평균 이동전화 요금(54위), ICT 서비스 수출액 비중(35위), 설문지표 등은 25위권 밖으로 약점영역임 (약점 지표 9개)

※ (2016년 강·약점 지표) 총 21개 지표 중 4개 강점 지표, 11개 약점 지표

[표 3] 우리나라의 기술 인프라 지표별 순위 추이(2013년~2017년)

기술 인프라 지표 (총 21개)	2013	2014	2015	2016	2017	순위변동
기술 인프라 종합 순위	11	8	13	15	17	↓2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	-	-	-	52	24	↑28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	-	-	-	4	12	↓8
1인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	-	-	50	54	↓4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12	15	12	12	16	↓4
사람과 기업간에 통신 등을 이용해 접속가능한 정도*	12	11	11	13	16	↓3
전세계 사용 컴퓨터 수 대비 점유율	11	11	11	11	11	-
인구 천 명당 컴퓨터 수	19	16	18	18	18	-
인구 천 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15	15	16	16	17	↓1
인구 천 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5	5	5	20	22	↓2
평균 인터넷 대역폭 속도	-	-	-	1	1	-
디지털 기술의 사용 용이성*	-	-	-	-	22	신설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23	28	29	34	32	↑2
기업 간 기술협력정도*	37	39	35	42	45	↓3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17	18	21	36	29	↑7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32	34	31	51	47	↑4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37	42	34	44	46	↓2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 지원 정도*	38	30	30	43	44	↓1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6	6	5	5	6	↓1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7	7	6	6	7	↓1
서비스 수출액 중 ICT 서비스의 비중	-	-	41	39	35	↑4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38	58	39	45	49	↓4

주) 분야별 강점 지표(분홍색 음영)는 10위 이내의 지표, 약점 지표(노란색 음영)는 25위 이하를 의미, * 설문 지표,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 지표는 전년도에는 투자액 기준이었으나 올해 비율지표로 정의가 소폭 변경되었음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참고] IMD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DCR,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 IMD는 본 평가(세계 경쟁력 평가)와 별도로, 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국가 디지털 능력을 측정하고자, 디지털 경쟁력 평가(DCR)를 올해 처음 발표 (3개 부문, 9개 항목, 50개 지표 / 63개국 대상 평가)
- 2017 디지털 경쟁력 평가의 우리나라 결과 : 종합 19위 (지식 14위, 기술 17위, 미래 준비도 24위)
※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은 전체 국가 경쟁력보다 그 수준이 높음

디지털 경쟁력 지표체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변동			
종합 순위							14		21		18		17		19		↓2			
지식 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7	변동	기술 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7	변동	미래준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변동
	14	12	13	15	14	↑1		13	18	16	13	17	↓4		19	25	24	25	24	↑1
인재	23	21	23	27	25	↑2	제도적 환경	26	29	23	28	28	-	신기술 적응도	10	11	8	8	10	↓2
교육 훈련	13	12	10	14	13	↑1	자본 환경	19	30	32	35	41	↓6	기업의 기민성	31	43	38	43	48	↓5
과학 집중도	10	9	9	8	9	↓1	기술적 환경	2	3	2	2	2	-	정보기술 통합	19	21	17	21	23	↓2

주) IMD에서 2017년 최초 발표된 자료이며, 과거 5개년 시계열을 함께 산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음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5. 정리 및 시사점

- IMD의 국가 경쟁력이란 기업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29위로 전년대비 동일
 - 우리나라 기업경영효율 부문은 전년보다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4대 부문 중 가장 취약
 - 국정 혼란 등의 여파, 미세먼지 노출 등이 지표단위에서 영향을 준 결과, 우리나라 정부행정 효율과 발전 인프라의 순위도 전년대비 하락
 - ※ 4대 부문별 순위 변동(상승) : 기업경영효율(48위→44위, ↑4)
우리나라의 4대 부문별 순위 변동(하락) : 정부행정효율(26위→28위, ↓2), 발전 인프라(22위→24위, ↓2), 경제운용성과(21위→22위, ↓1)
 - 종합순위는 홍콩, 스위스가 전년과 동일하게 각 1,2위를 차지하였으며, 베네수엘라(63위), 브라질(61위), 우크라이나(60위)는 최하위권임
 - ※ 최하위권은 언론에서 정치적 이슈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국가로, 정부 효율성 저하가 종합순위에 영향
 - 상위 30개국 중 중국이 전년대비 다소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7)한 것이 특징
 - ※ IMD 경쟁력 센터는 정부·기업 효율성이 향상된 국가가 높은 종합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 중국은 대표적 사례
-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은 8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으며, 평가항목(총 20개)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종합순위에 기여
 - 과학 인프라 지표는 과반 이상 10위권 이내 강점 지표(14개/총 25개)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점영역인 연구개발투자, 인력, 특허 지표는 몇 년간 소폭 변동하며 10위권을 유지



- 전통적인 강점역역 지표일지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변화하는 혁신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세계 5위로 최상위권, 반면 비율지표(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3위로 절대지표(연구개발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한편, 그간 순위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설문지표는 순위가 반등하기 시작한 지표*들이 일부 존재
 - * 과학연구수준이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 정도, 산학간의 지식 전달 정도,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
 - ※ 설문지표 : 응답자의 국가 정책에 대한 만족도(주관적 의견)을 묻는 지표임. 따라서 순위 변동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이해해야 함
- 연구개발, 연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 수준(8위)과 현장의 과학 인프라 정책 만족도(27위~44위) 사이 격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 **기술 경쟁력은 강점역역의 상대적 부재로 과학 인프라 보다 낮은 순위(17위)를 차지하였으며, 정량지표의 순위 변동에 영향을 받아 2단계 순위가 하락(17위)**

- 기술 인프라는 과학 인프라에 비해 강점 지표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과학 14개, 기술 3개), 기술 인프라는 항목 내에 약점 지표(9개)가 강점 지표(3개) 보다 월등히 많음
 - ※ 강점 지표 수 : 과학 인프라(14개) >> 기술 인프라(3개) /
약점 지표 수 : 과학 인프라(9개) = 기술 인프라(9개)
- 또, 통신인프라의 양적 규모를 측정한 지표들(정량지표)*에서 다소 순위가 하락
 - *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 1인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등
-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비교할 때, 이미 통신기술 인프라가 우수하게 갖춰져 있어 발전의 폭(데이터와 순위 향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함

● **순위의 정체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신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의지를 고려할 때 향후 그 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IMD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경우, 한 국가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량(국가의 과학기술 인프라 역량)을 의미함
 - ※ 세계 주요 경쟁력평가(WEF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혁신·기술수용성), INSEAD의 세계혁신지수, EU의 유럽혁신지수 등)별 과학기술 경쟁력이 갖는 의미가 상이하여 평가별 해석에 유의
- 순위의 정체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학(8위)과 기술 인프라(17위)는 모두 종합 경쟁력 수준(29위)을 상회하는 등 과거부터 줄곧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요소 중 하나였음
 - ※ 국가경쟁력 : 22위('13년) → 26위('14년) → 25위('15년) → 29위('16년) → 29위('17년)
과학경쟁력 : 7위('13년) → 6위('14년) → 6위('15년) → 8위('16년) → 8위('17년)
기술경쟁력 : 11위('13년) → 8위('14년) → 13위('15년) → 15위('16년) → 17위('17년)
-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높은 기술 여건(2위)과 적응도(10위)는 기술 경쟁력을, 누적된 강건한 연구개발 투자는 과학 경쟁력 향상의 기반으로 작용. 특히, 신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ICT 르네상스 추진,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그 수준의 향상을 기대



[통계표]

[표 4] IMD 국가 경쟁력 순위 추이(2016년~2017년)

국 가	2016	2017	순위 변동	국 가	2016	2017	순위 변동
홍콩	1	1	-	리투아니아	30	33	↓ 3
스위스	2	2	-	스페인	34	34	-
싱가포르	4	3	↑ 1	칠레	36	35	↑ 1
미국	3	4	↓ 1	사우디아라비아	-	36	신규
네덜란드	8	5	↑ 3	사이프러스	-	37	신규
아일랜드	7	6	↑ 1	폴란드	33	38	↓ 5
덴마크	6	7	↓ 1	포르투갈	39	39	-
룩셈부르크	11	8	↑ 3	라트비아	37	40	↓ 3
스웨덴	5	9	↓ 4	필리핀	42	41	↑ 1
아랍 에미리트	15	10	↑ 5	인도네시아	48	42	↑ 6
노르웨이	9	11	↓ 2	슬로베니아	43	43	-
캐나다	10	12	↓ 2	이탈리아	35	44	↓ 9
독일	12	13	↓ 1	인도	41	45	↓ 4
대만	14	14	-	러시아	44	46	↓ 2
핀란드	20	15	↑ 5	터키	38	47	↓ 9
뉴질랜드	16	16	-	멕시코	45	48	↓ 3
카타르	13	17	↓ 4	불가리아	50	49	↑ 1
중국	25	18	↑ 7	루마니아	49	50	↓ 1
영국	18	19	↓ 1	슬로바키아	40	51	↓ 11
아이슬란드	23	20	↑ 3	헝가리	46	52	↓ 6
호주	17	21	↓ 4	남아공	52	53	↓ 1
이스라엘	21	22	↓ 1	콜롬비아	51	54	↓ 3
벨기에	22	23	↓ 1	페루	54	55	↓ 1
말레이시아	19	24	↓ 5	요르단	53	56	↓ 3
오스트리아	24	25	↓ 1	그리스	56	57	↓ 1
일본	26	26	-	아르헨티나	55	58	↓ 3
태국	28	27	↑ 1	크로아티아	58	59	↓ 1
체코	27	28	↓ 1	우크라이나	59	60	↓ 1
한국	29	29	-	브라질	57	61	↓ 4
에스토니아	31	30	↑ 1	몽골	60	62	↓ 2
프랑스	32	31	↑ 1	베네수엘라	61	63	↓ 2
카자흐스탄	47	32	↑ 15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표 5] IMD 과학 인프라 순위 추이(2016년~2017년)

국 가	2016	2017	순위 변동	국 가	2016	2017	순위 변동
미국	1	1	-	인도	33	33	-
일본	2	2	-	폴란드	37	34	↑ 3
중국	5	3	↑ 2	헝가리	35	35	-
이스라엘	3	4	↓ 1	사우디아라비아	-	36	신규
스위스	4	5	↓ 1	리투아니아	40	37	↑ 3
독일	6	6	-	터키	34	38	↓ 4
스웨덴	7	7	-	그리스	38	39	↓ 1
한국	8	8	-	아랍 에미리트	42	40	↑ 2
영국	9	9	-	브라질	36	41	↓ 5
대만	10	10	-	에스토니아	39	42	↓ 3
덴마크	11	11	-	남아공	43	43	-
싱가포르	13	12	↑ 1	우크라이나	41	44	↓ 3
프랑스	12	13	↓ 1	멕시코	45	45	-
네덜란드	14	14	-	아르헨티나	46	46	-
핀란드	15	15	-	슬로바키아	49	47	↑ 2
오스트리아	18	16	↑ 2	태국	47	48	↓ 1
벨기에	17	17	-	카자흐스탄	48	49	↓ 1
캐나다	16	18	↓ 2	칠레	50	50	-
노르웨이	20	19	↑ 1	루마니아	44	51	↓ 7
호주	19	20	↓ 1	인도네시아	58	52	↑ 6
아일랜드	21	21	-	불가리아	51	53	↓ 2
이탈리아	22	22	-	라트비아	53	54	↓ 1
룩셈부르크	24	23	↑ 1	카타르	54	55	↓ 1
홍콩	26	24	↑ 2	크로아티아	52	56	↓ 4
러시아	23	25	↓ 2	필리핀	55	57	↓ 2
스페인	27	26	↑ 1	요르단	56	58	↓ 2
뉴질랜드	25	27	↓ 2	콜롬비아	57	59	↓ 2
체코	28	28	-	사이프러스	-	60	신규
말레이시아	29	29	-	페루	59	61	↓ 2
아이슬란드	31	30	↑ 1	베네수엘라	60	62	↓ 2
슬로베니아	30	31	↓ 1	몽골	61	63	↓ 2
포르투갈	32	32	-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표 6] IMD 기술 인프라 순위 추이(2016년~2017년)

국 가	2016	2017	순위 변동	국 가	2016	2017	순위 변동
싱가포르	1	1	-	라트비아	32	33	↓ 1
네덜란드	5	2	↑ 3	포르투갈	33	34	↓ 1
핀란드	4	3	↑ 1	폴란드	37	35	↑ 2
중국	18	4	↑ 14	태국	42	36	↑ 6
스위스	9	5	↑ 4	이탈리아	36	37	↓ 1
미국	3	6	↓ 3	칠레	43	38	↑ 5
스웨덴	2	7	↓ 5	불가리아	46	39	↑ 7
노르웨이	6	8	↓ 2	카타르	48	40	↑ 8
덴마크	8	9	↓ 1	루마니아	34	41	↓ 7
이스라엘	7	10	↓ 3	필리핀	41	42	↓ 1
캐나다	13	11	↑ 2	카자흐스탄	47	43	↑ 4
독일	16	12	↑ 4	슬로베니아	39	44	↓ 5
프랑스	17	13	↑ 4	헝가리	40	45	↓ 5
아일랜드	19	14	↑ 5	사우디아라비아	-	46	신규
대만	12	15	↓ 3	슬로바키아	38	47	↓ 9
영국	11	16	↓ 5	그리스	49	48	↑ 1
한국	15	17	↓ 2	인도	45	49	↓ 4
홍콩	14	18	↓ 4	요르단	44	50	↓ 6
일본	10	19	↓ 9	브라질	51	51	-
말레이시아	23	20	↑ 3	터키	50	52	↓ 2
아이슬란드	20	21	↓ 1	크로아티아	52	53	↓ 1
벨기에	21	22	↓ 1	인도네시아	54	54	-
룩셈부르크	24	23	↑ 1	멕시코	55	55	-
오스트리아	22	24	↓ 2	사이프러스	-	56	신규
아랍 에미리트	30	25	↑ 5	아르헨티나	53	57	↓ 4
체코	28	26	↑ 2	콜롬비아	56	58	↓ 2
리투아니아	25	27	↓ 2	남아공	57	59	↓ 2
스페인	29	28	↑ 1	우크라이나	58	60	↓ 2
호주	26	29	↓ 3	페루	60	61	↓ 1
에스토니아	31	30	↑ 1	몽골	59	62	↓ 3
뉴질랜드	27	31	↓ 4	베네수엘라	61	63	↓ 2
러시아	35	32	↑ 3				

자료)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2017.6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호수 : 2017년 제07호

발간물 명 : IMD 2017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775 서울시 서초구 마방길 68(양재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조사분석실
Tel. 02 589 5243 Fax. 02 589 2191